

光日春秋



장석주 시인

사람들은 삶이 힘들 때 추억의 힘을 빌려 거기서 벗어난다. 추억이란 우리 안에서 지속하는 현존이다. 추억은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바래지만 그것이 아주 사라지는 법은 없다. 분명한 것은 추억의 힘이 아주 세다는 사실이다. 추억과 비밀은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는 내면의 재화이다. 한 사람이 가진 인격과 취향은 과거라는 골짜기에서 양조(釀造)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삶은 과거가 머금은 빛들로 빛날 수 있다. 먼 시절의 추억이 그리워지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내게 스무 살은 암울하고 칙칙했다. 글을 쓴다는 명분을 앞세우고 백수로 떠돌던 시절이다. 그 시절의 여성들은 더 환하게 웃었는데 그 웃는 얼굴이 얼마나 눈부셨던지! 나는 마음으로 좋아하는 여성에게 말을 건네지 못했다. 그때에도 봄마다 모란과 작약이 피고, 가을 내장산의 단풍은 볼만했다. 물은 낮은 지대로 흘러가고, 불꽃은 수직으로 타올랐다. 강변의 베드나무들은 푸르고, 가을엔 북극의 기러기 떼가 한반도로 날아왔

추억은 힘이 세다

다. 어머니들은 자식들에게 더 너그럽고, 배움이 깊지 않은 아버지들은 자식을 굶기지 않으려고 성심을 다해 일했다.

나는 콜린 윌슨의 '아웃사이더', 고은 시집, 불프강 보르헤르트의 단편과 시를 모은 '이별 없는 세대', 다자이 오사무의 '사양'이 수록된 신구문화사판 '전후세계 문학선집' 따위를 정전처럼 옆구리에 끼고 다녔다. 한량처럼 빈둥거리던 나는 사실은 서울의 시립도서관에서 독학으로 시와 철학에 정진하던 청년이었다. 가끔 프랑스 문화원에서 영화를 보거나 명동 입구 카페 데아뜨에서 연극 관람을 했다. 그리고 굶주린 하이네가 먹잇감을 찾듯이 '르네상스'나 '필하모니'에서 고전음악을 들으며 영혼이 고양되는 찰나에 취했다.

그 무렵 문학과 예술에 목말라 하던 내게 군 입대 신체검사 통지서가 날아들었다. 나는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본격적인 총남의 신체검사장을 찾아갔다. 군인들은 신체검사를 받는 장정들에게 반말이나 욕설을 내뱉으며 모욕을 주었다. 나는 신체검사에서 대한민국 청년의 평균 체중에 미달한 탓에 무종 판정을 받았는데, 그전 이듬해 신체검사를 다시 와서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서울로 돌아와 '르네상스'에 가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을 연속으로 들으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독일 작가 하일리히 벨의 소설이던가? 한 어린 병사가 징집되어 열차에 타기 직전 한 건물 담벼락에 몸을

기댄 채 어디선가 울려 나오는 모차르트 음악을 듣는다. 그 음악 전곡을 들을 수 있다면 제 인생의 반을 때려 주겠다고 말하던 어린 병사는 열차를 타고 전선으로 향한다. 그는 살아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다. 신체검사에서 낙방을 하고 돌아오던 나는 얼마나 의기소침하고 비장했던가! 그건 내가 전쟁터로 향하는 어린 병사의 가없는 영혼에 빙의된 상태였던 탓이리라.

추억은 늘 실제 경험에 기반 하지 않는다. 철학자 샤를 페맹은 "우리는 과거를 결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말한다. 추억은 재가공되고, 뇌를 이루는 850억 개의 뉴런과 그보다 더 많은 시냅스들의 작용하는 가운데 그 정체가 바뀐다. 그것은 추억이 경험과 몽상이 상호 삼투하며 나타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추억은 [기억의] 재구성' (샤를 페맹, '삶은 어제가 있어 빛난다' 163쪽)이다. 추억은 좋은 시절을 더 화사하게 윤색하고, 끼니를 거르던 가난의 누추함도 그리워하게 만든다. 추억에는 우리를 너그러운 사람으로 만드는 힘이 있다. 고백컨대, 15세부터 시를 썼던 불프강 보르헤르트를 동경하고(나도 15세부터 시를 썼다), 스무살의 나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로 영혼이 찢긴 채 뼈적마른 몸으로 떠도는 한심한 영혼이었다. 나를 성장으로 이끈 창조적 악동, 생의 리듬들은 그 시절의 정처 없음과 방향, 나른한 독서, 음악에의 열광 등에서 나왔다. 오늘 내 삶에 조금이라도 빛나는 게 있다면, 그건 모두 저 암울한 어제에서 온 것이다.

종교칼럼

상대적 믿음과 절대적 믿음



김원명 광주원음방송 교무

믿음에는 상대적 믿음과 절대적 믿음이 있다. 상대적 믿음이란 현실에 대한 믿음이고, 절대적 믿음이란 진리 실상에 대한 믿음이다. 현실에 대한 믿음은 그 믿음이 절대적일 수 없다. 반드시 그 상황에 상응하는 믿음이라야 지혜로운 믿음이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진리 실상에 대한 믿음은 상대적일 수 없다. 진리가 갖는 속성 자체가 절대적이므로 절대적 믿음이라야 역시 지혜로운 믿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인간의 삶 속에서 이따금 현실화된 내용을 절대 믿음으로 착각하여 주장하는 사례가 있다. 이 데올로기의 절대화, 사회제도의 절대화, 또는 어떤 종교나 이념이나 주의·주장의 절대화를 꾀하려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우리 인류의 불행에 자초하고 있다. 현실화된 현상은 제각각 독특한 특징이 있고, 그에 따라 장단과 허실이 있기 마련이다. 진리 실상에서 현상으로 한 발자국만 나와도 절대성은 이미 무너져 버리는 것인데 어찌 절대적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

현상적 대상물에 대한 믿음을 절대화하려 할수록 그 허구는 점점 더 부풀려진다. 반면에 절대적 진리 실상에 대한 믿음을 자기의 소견이나 자기 필요에 따라서 긍정,부정을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다. 뿐만 아니라 형이상학적 진리 실상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도 태반이다. 우리 범부 중생은 안·이·비·설·신(眼·耳·鼻·舌·身)의 오관기관(五官器官)을 통해 감지되는 대상은 쉽게 인식하지만, 오관기관으로 감지되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는 아예 인정하지 않거나 별로 관심이 없거나 깊이 헤아려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생물학에서도 오관으로 감지되지 않는 기(氣), 정신 등의 존재가 있으며, 현대물리학에서도 우주의 구성 물질 가운데 현재 관측할 수 있는 물질은 4% 정도에 불과하고, 관측 불가능하여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암흑(다크)물질과 에너지가 90%를 넘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영역이 얼마나 되는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겨우 한줌 아는 것 가지고 어찌 진리 실상의 존재 여부를 부정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요컨대 지혜의 문제이다. 지혜가 열리면(깨달음) 대낮에 손바닥 속 구슬을 보듯 확실하게 보이지만, 지혜가 어두우면 옆에 있는 사물도 안 보이는 맹인과 다를 바 없다. 이에 지천명(知天命)이나 이순(耳順)의 경지에 올라야 그 믿음을 자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진리의 실상은 무궁한 묘리(妙理)와 무궁한 보물과

무궁한 조화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갖추어진 완전무결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를 절대적 존재라고 하고, 절대적 존재에 대한 믿음 또한 절대적 믿음이라야 가장 지혜로운 믿음이고, 가장 은혜로운 믿음이다. 이 믿음이 깊어질수록 은혜의 결과가 무궁무진하게 되고 반대로 불신할수록 폐해가 따르고 손실이 뒤따르는 결과를 빚는다. 절대적 믿음을 신앙이라고 한다. 상대적 믿음은 일반적으로 쓰는 '믿음'이라는 용어로 표현해도 충분하며, 결코 '신앙'일 수 없다. 절대적 진리 실상은 어디에도 없는 곳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능하지 않은 바가 없고, 품어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없고, 하지 않는 바도 없고, 부리지 않는 바가 없다.

이러한 절대적 대상에 대한 믿음은 자기 취향 따라, 자기 필요 따라 어디까지 믿고 어디까지는 안 믿고 할 대상이 아니다. 오직 절대적 믿음을 바쳐야 할 대상이다. 이러한 것을 믿을 신앙이라 하고 이 대상을 신앙의 대상이라 한다. 너무도 위대하고 너무도 분명하고 너무도 큰 역사(役事)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직 우리를 대상으로, 그 어떤 현실 대상과도 견줄 수 없는 지고지존(至高至尊)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신앙의 대상이요, 절대적 믿음의 대상이다.

이 두 가지 믿음, 즉 '상대적 믿음, 절대적 믿음'의 원리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해 간다면 개인은 물론 국가 사회에도 큰 경사이자 은혜로 작용할 것이므로 이 믿음 체계를 정화하는 일이 가장 근본적인 일이고, 필수적인 일이다.

기고

어떤 섭리



이중섭 소설가

가끔 세상의 이치는 생소한 방법으로 나에게 경고하곤 한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모든 것은 결국 세상의 이치가 옳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글쓰기 수업이 끝난 날이었다. 뒤풀이를 마치고 지도 교수와 H 그리고 나만 남았다. 셋은 의기투합해 뿔집으로 향했다. 술을 두어 병 마셨다. 나는 지도 교수에게 육체적 노동하며 글을 쓰는 것에 대단하다고 말했다. 그때 H가 세발낙지를 주문해 교수 앞으로 밀었다. 살살 웃으며 맛있으니 많이 드시라고 했다. 장난처럼 보였다. 나는 방금 지도 교수와 글쓰기와 노동에 관해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땀이죠, 그걸 믿어요! 어떻게 막일하면서 글을 써요. 자기 외피 치장용으로 하는 말이죠." 앞에 당사자가 있는데 H가 대놓고 말했다. 듣는 내가 민망했다. 지도 교수는 그냥 허허, 웃고만 있었다. 어이가 없었다. 막일하며 소설 쓰면 안 되나 싶었다. 몇 차례 이런저런 대화가 오갔다. "나도 일하면서 글을 쓰는 것이 괜찮다고 말하곤 했는데 그것도 외피용으로 봤는데?"

H는 나를 무시한 채 지도 교수만 보며 말을 툭, 내뱉었다. "그러든가 말든가……"

뭐지? 이놈이 뭘가 나한테 뻤던 것이 있구나. 이번엔 확실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공법을 썼다. "전에도 술자리에서 나한테 이런 비슷한 말 했죠? 뒤늦은 나이에 뭐 하러 글을 쓰려하냐고? 오늘 말하는 것 보니 그때 진짜였네?"

뿔집은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지도 교수는 우리 둘의 대화를 보며 슬그머니 미소만 띠었다. H는 나를 보지도 않은 채 계속 교수만 보았다. "진심이였죠. 다 아는 사람이 뭐 하러 젊은 사람들 공부하는데 끼어들어요. 귀찮게……"

함께 글쓰기 수업을 한 지 육 개월 정도 되었다. 평소 그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씩씩했다. 교재로 사용하는 소설책도 사서 나눠주곤 했다. 그런데 속은 완전히 달랐다. 나만 녀석과 친하다고 생각했다. 지도 교수는 살짝 웃으며 그 친구와 나를 살폈다.

"그래? 그때 실수한 걸로 생각했는데 진짜였던 말이지?" 그는 나를 보지 않은 채 계속 교수를 보며 이것 드셔보세요, 하며 살살 웃었다. "말이 많아요 어지간히 많아야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이제 관심도 없어."

그는 대놓고 거침없이 막말을 하기 시작했다. "좋아, 교수 앞이 아니었으면 한 볼때기 날리고 싶은데 참는다. 그럼, 오늘로 끝."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짐을 챙겨 일어

났다. 한 번 더 녀석을 쫓아보았다. 녀석은 지도 교수에게 세발낙지를 드려보시라고 앞으로 밀었다. 계산대 앞을 지나면서 잠시 머뭇거렸다. 이 나이에 젊은 애들과 공부하러다가 이게 뭘 찡피냐는 생각이 머리를 땀뿔었다.

다음날, 그 친구한테서 카톡이 왔다. 이전 술자리 끌고 나고 내게 보냈던 메시지와 똑같았다. 어젯밤 어찌 헤어졌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실수한 것 없었는지요, 술집 계산은 어떻게 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 했다. 문득 그의 글쓰기에 자주 나오는 '경계선 알코올 치매'라는 용어가 떠올랐다.

며칠 동안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었나 고심했다. 말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대적이다. 내가 말이 많을 수도 있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말 많다고 나한테 잔소리를 들었던 몇 사람이 떠올랐다.

그들에게도 참다 마지못해 한마디씩 하곤 했다. 그 한마디 하는 순간이 내가 참을 수 있는 한계였다. 가만 생각하면 그런 한계는 사람마다 달랐다. 말 많다고 느끼는 것도 각자 달랐다. 나는 나 자신이 참을 수 없는 경계에 설 정도면 상대가 말이 많다고 단정을 지었다. 그럴 때마다 상대는 자기는 전혀 말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H와 그날 밤 이후 말 많은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화를 냈던 몇 사람도 H처럼 언젠가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을지도 몰랐다.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섭리가 미리 제삼자를 통해 나에게 경고 메시지를 준 것이었다.

社說

‘원형 복원’ 옛 전남도청…콘텐츠도 중요하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들의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전시 콘텐츠 구성안이 공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그제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복원사업 전시설계와 제작·설치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은 내년 10월까지 전시물 설치를 마치고 12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원사업의 핵심은 원형 복원이다. 복원 작업은 옛 전남도청 본관·별관·회의실, 경찰국 본관·민원실, 상무관 등 6곳에서 진행되는 데 외부는 5·18 이전 시점으로 복원하고 내부는 5·18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복원추진단이 공개한 전시 콘텐츠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관심이 쏠렸다. 원형 복원에 방점을 두다 보니 도청 회의실 지하에 시민군 무기고를 복원하고 시민군과 계엄군이 사용한 총기 등 무기를

실물 전시해 시민군의 열악한 실태를 보여주겠다는 의도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일부 콘텐츠가 지나치게 사실적인 묘사에 치중해 5·18 왜곡 편향 세력에게 악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원형 복원 원칙인 만큼 벌써부터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다만 원형 복원도 중요하지만 미래 세대와 외국인 방문객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문화예술 콘텐츠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문화부는 복원 콘셉트로 옛 전남도청을 5·18의 '랜드 마크(Land mark)'로 넘어 5·18 정신을 계승하고 세계로 확산시키는 '마인드 마크(Mind mark)'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소년이 온다'의 무대가 바로 이곳이다. 마인드 마크 조성에 이보다 더 적합한 콘텐츠도 없다. 최대한 반영해 경쟁력 있는 콘텐츠로 탄생했으면 좋겠다.

신재생에너지 특별법으로 송전설비 확충해야

전남지역에서 신규 발전허가를 중단하거나 발전 자체를 차단한 근본 원인은 전력량 부족이라는 사실이 통계로 공식 확인됐다. 신재생에너지의 메카인 전남도로서는 도내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를 타지역으로 보낼 수 있는 송전 설비를 확충해야 할 과제를 안은 셈이다.

정부는 그동안 전남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너무 많아 과도한 전기를 생산한 탓에 정전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해 발전을 차단하고, 신규 발전소 허가도 중단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전기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 발전소를 허가한 곳이 한정인데, 마치 발전소가 많은 전남이 문제인 듯한 취급을 받아오는 것이다. 또한 신규 허가 중단도 문제이기는 마찬가지다. 사업부지를 구매하고 절차를 밟으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자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남지역 신규 발전허가는 오는 2031년까지 중단된 상황이다. 송전망이 부족

해 대규모 정전 발생 우려가 크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전남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많아서가 아니라 발전량을 감당할 송전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의 '산업계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 공급 최적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최대 전력 수요는 2003년 47GW에서 2023년 94GW로 98% 증가했으며, 발전 설비 용량은 같은 기간 154%나 늘었다. 반면 송전 설비는 동일 기간 26% 증가에 그쳤다. 결국 문제는 송전선로 확보인 것이다.

송전망 건설사업은 주민들의 송전설비 설치 반대와 저지대 인허가 비협조 등으로 인해 대부분 5~6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사업관련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강화와 송전망 사업 기준 완화 등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안'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

無等鼓

일본 오기나와에서 KIA 타이거즈의 마무리캠프가 진행되고 있다. 이곳은 야구팬들에게는 익숙한 곳이다. 현재 KIA와 함께 삼성 라이온즈가 마무리캠프를 소화하고 있고, 스프링캠프 기간에는 더 많은 팀이 오기나와를 찾아 새 시즌을 준비한다. 그래서 야구팬들에게 오기나와는 일본에서 가장 친숙한 도시 중 하나가 됐다.

오기나와는 일본 본토 사람들에게는 대표적인 휴양지로 꼽힌다. 우리나라의 제주도나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에게도 2월 오기나와는 '야구의 섬'이다. 일본 최고 인기 팀인 요미우리를 필두로 라쿠텐, 한신, 니혼햄 등이 이곳에서 캠프를 소화한다.

한국과 일본의 프로야구팀이 오기나와에 집결하기 때문에 2월에는 연습경기도 많이 진행된다. 그래서 일본 야구팬들은 물론 한국 야구팬들도 대거 오기나와로 건너온다. 연습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일본팀들의 상품 판매 부스가 마련되고, 기념품을 구매하려는 이들이 장사진을 이룬다. 오기나와는 화려한 대도시가 아니다. 오기나와는 화려한 대도시가 아니다. 오기나와는 비유하자면 작은 군 단위마다

경기를 할 수 있는 야구장과 보조 구장 그리고 실내 연습장이 갖춰져 있다. KIA가 캠프지로 이용하는 킨도 인구가 1만에 불과한 작은 도시다. 훈련과 경기를 하기에 좋은 조건이지만 실내연습장이 없는 게 유일한 아쉬움이었지만 지난해 이곳에도 최신식 실내 연습장이 완공됐다.

오기나와는 뛰어난 자연 풍광과 함께 야구는 상품을 더해 많은 이들이 찾는 관광지가 됐다. 야구 관광객들로 활기를 띠는 오기나와, 여기에 이곳을 찾는 야구단은 '큰 손'이다. 이번 캠프에 KIA는 선수, 코칭스태프 등 50명이 넘는 선수단을 파견했다. 대규모 선수단이 한 달 가량 이곳에 머물면서 쓰는 돈은 상당하다. 취재진과 팬들까지 더하면 야구가 지역 경제를 움직이고 있다.

올 시즌 KBO는 사상 첫 1000만 관중을 돌파했다. 야구가 이제 산업이 되고 있다. 누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에 따라 미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좋은 환경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전남, 오기나와를 다녀올 때마다 구색만 갖춘 인프라와 뒤쳐진 지자체의 인식이 아쉽게 느껴진다. /김여울 체육부 차장 wool@

Table with 2 columns: English and Korean text for the newspaper's masthead and contact information.